

“건강권 위협 학교 급식실 종합 안전대책 시급”

윤대통령, 김광동 과거사위원장 임명

4·3평화 논란 인물... 대통령실 “활동 연속성 위해 임명”

■ 제주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급식 종사자 폐암 의심 없으나 87명은 지속 관찰 소견
내년 환기시설 교체 26억...“일부 아닌 전 학교 시행을”

학교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확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지난 9월 13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0년 이상 경력 또는 55세 이상 급식 종사자에 대한 저선량 폐 CT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영양사, 영양교사 등 총 730명(공립 학교 640명)이다. 제주에서는 10월 15일 기준 공립

학교에서 폐암 의심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양성 결절 84명, 경계선 결절 3명 등 87명이 각각 1년에 한 번, 6개월마다 검진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자체 점검을 통해 88개교를 대상으로 ‘환기 시설 점검 용역’을 벌이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부분이나 전체 교체를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26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폐암 의심 환자는 없었지만 87명에 대한 지속 관찰은 향후 전체 인력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환기



고의숙 의원



강상수 의원



양명식 의원

시설의 경우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 교체하는 등 종합적인 산재 예방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흥동)은 “급식실 음식물 감량기 안전사고가 2018년 이후 6건 발생했다”며 “감량기가 설치되면서 급식실 종사자들의 업무량이 늘어났지만 인원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양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나 노

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며 “매년 폐 CT 검사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대체 인력이 없어 병가나 연차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순문 부교육감은 “감량기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사고가 잦은 특정 기종 감량기 교체, 분기별 안전교육,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경수 교육국장도 “급식실 종사자 폐암 검진 최종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 현 진화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정치학박사 출신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다. 2021년 2월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재임하면서 각종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업무를 수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김 내정자는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현안 업무 추진의 연속성은 물론 대한민국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신임 위원장이 진화위원장을 맡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신임 위원장이 과거 기고글에서 4·3을 폭동이라고 지칭하는 등 4·3평화 논란이 상임위원 발탁 당시부터 지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2대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 재정립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잘못된 부정을 바로잡고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강사 양성자 교육과정도, 23일까지 수강생 모집

민선8기 역점사업 ‘아세안+α 정책’ 박차

영세기업 맞춤형 데이터 저변 확대

도·과기부, 13일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로드쇼 지역 기업 우수 사례 소개... 올해 48개 기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강사 채용을 위한 ‘강사 양성자 교육과정’ 수강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까지 강사 양성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며, 모집 규모는 50명 내외다. 신청은 제주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누리집(jj.sweduhub.or.kr)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교육담당(070-5151-2486)에게 하면 된다. 내년 1~2월 160시간의 강사 양성자 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고용평가를 통해 10개월 동안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도내 초·중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SW) 교육, 콘텐츠개발, 학생 멘토링, 소프트웨어(SW) 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고대로그자

제주-베트남 교류협력 논의
오 지사, 응 우엔 티탕 상임위원
직항 개설·미래산업 분야 등 협력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역점 사업인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정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베트남 농·축·수산물, 관광, 미래산업, 기업 유치·투자 등 전방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응우옌 티 탕 국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베트남 방한대표단은 제주-베트남 간 수출품목 확대, 제주-베트남 주요 도시(호치민, 하노이 등) 간 직항 개설,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 발전, 농축수산업 및 관광 분야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제주 방문 후 응우옌 티 탕 국회



지난 8일 오영훈 지사와 응우옌 티탕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이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상임위원은 “농·수·축산업과 관광업, 재생에너지, 신소재 분야 등에 대한 제주의 발전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했다”며 “제주도와 베트남이 함께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교류협력

을 강화하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새로운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베트남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8년 5월 21일 베트남 키엔장성과 우호교류도시 협약을 체결해 지역 간 청소년과 지방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태연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영세기업에 대한 맞춤형 데이터 지원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성과 로드쇼를 오는 13일 오후 2시 제주 벤틀마루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역 소재 영세기업들의 열악한 데이터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급기관이 가공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2년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역 기업 활용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수요기업 참여와 관련해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보다 많은 지역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신청해 맞춤형 데이

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협업해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올해에는 48개 지역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도는 지역기업과 도내 공급기관 간 매칭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해 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 노력이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도내 영세기업들이 비용 문제 등으로 주저해왔던 맞춤형 데이터를 지원받는 길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기회를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독자제보 ☎750-2214

꽃자왈 공유화
기금모금 캠페인

2022 꽃자왈 공유화 기금모금 릴레이 캠페인
<삶이 아름다운 꽃자왈 동반자>

“고맙습니다, 꽃자왈 동반자님!”

상황리
종료

꽃자왈 동반자 (기관·단체·기업)		꽃자왈 동반자 (개인)					
까리파스유치원(원장 박순미 펠리노 수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운)	강성익(화북동)	김명신(오라동)	김진성(토평동)	양금실(연동)	이동구(노형동)	정수연(부산 연제구)
㈜남원건설(대표 노신욱)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호민)	강은경(구좌읍)	김명익(삼도동)	김해림(총복 읍성)	양정심(삼도동)	이명미(삼양동)	정철운(광주 북구)
노무법인 산하(대표 현길호)	제주은행(은행장 박우혁)	강춘식(삼도동)	김선우(남원읍)	김호봉(노남동)	여상원(서울 서초구)	이민영(전북 군산)	조근자(용담동)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본부장 문상철)	제주중앙상당(주임신부 현경훈 미카엘)	강태욱(대구 북구)	김수남(강정동)	문진실(아라동)	오명숙(상예동)	이범신(충남 아산)	최낙문(애월읍)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표)	제주중앙신협(이사장 김태용)	고도인(용강동)	김수미(서울 마포구)	박경희(일도동)	오상봉(오라동)	이상순(구좌읍)	최예진(동홍동)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장태범)	제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대표 박명순)	고민준(일도동)	김애경(서울 송파구)	박남희(서울 중랑구)	오욱재(일도동)	이선경(경기 고양)	최혜준(경기 수원)
㈜더원 에코랜드(대표 정우석)	국제로타리 3662지구	고상선(삼도동)	김영자(연동)	박문현(일도동)	오종우(서울 구로구)	이영은(경기 용인)	최현석(대구 북구)
㈜드림코퍼레이션(대표 정순우)	제주탈라 로타리클럽(회장 김용희)	고수연(오라동)	김옥분(화북동)	박원배(오라동)	오지은(대정읍)	이영훈(서울 종로구)	한미화(구좌읍)
롯데이크(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제주투자(대표 최우철)	고영순(노형동)	김윤정(대정읍)	박진영(경남 창원)	오창호(구좌읍)	이정자(삼도동)	한부형(남원읍)
삼성여고 동아리 ‘데미테르 4-H’(현은정)	㈜지엠씨(대표 이병철)	고태숙(삼도동)	김은석(울산 중구)	부흥군(아라동)	유성경(서울 동대문구)	이해인(부산 수영구)	한승혜(서울 서초구)
㈜삼영교통(대표 김지윤)	㈜지오엔지니어링(대표 김남주)	김경덕(오라동)	김은희(제주)	손하늘(충남 천안)	윤경섭(아라동)	임란영(경기 성남)	현순선(이도동)
㈜새론(대표 문인성)	㈜카카오(대표 홍은택)	김남숙(아라동)	김잔디(해안동)	송미란(오라동)	윤장현(아라동)	임미지(삼도동)	현여순(도림동)
성심수산 유통회사(대표 이성복)	커피파인더(대표 지준호)	김남호(애월읍)	김정인(외도동)	송욱선(남원읍)	윤희원(경기 용인)	장우선(충북 청주)	홍영수(제주)
아침미소목장(대표 이성철)	컴플렉스(대표 강석우)	김다희(경기 성남)	김주영(아라동)	송진숙(서울 노원구)	이경은(화북동)	장유수(경기 의정부)	황미자(간접동)
안덕초 3학년 2반(담임교사 김유미)	KT CS 루키어린이집(원장 김희정)	김동례(부산 해운대구)	김준호(서울 관악구)	심학경(경기 남양주)	이근식(경기 양평)	정민주(부산 부산진구)	
예산산부인과(대표원장 백원인)	탈라미성형외과의원(원장 임영훈)						
오펜마르(대표 안호숙)	표선고 동아리 ‘여울’(동아리 대표 이채린)						
자연제주(대표 이석창)	하귀성당(주임신부 정진환 대건안드레아)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고재원)	한라신협(이사장 김명옥)						
㈜JS&F(대표 김준)	농업회사법인 ㈜해림(대표 최중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	㈜협동전기안전관리(대표 이순삼)						

(성함은 가나다 순서로 표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삶이 아름다운 꽃자왈 동반자 - 2022 꽃자왈 공유화 기금모금 캠페인>이 상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꽃자왈 워킹 캘린저> 또한 759건의 SNS 참여인증이 접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후원으로 기금 1천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주최 | 꽃자왈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협
제주은행
Loajena